

4.3.2 동사 형용사의 구별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나타내는 품사이다. 반면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둘은 의미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걷’고 ‘달리’고 ‘뛰’는 것은 움직임을 과정적 서술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뜻하’고 ‘덥’고 ‘뜨겁’다는 것은 성질이나 상태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일까 내 마음의 성질이나 상태일까?

언어적 직관과는 달리 ‘사랑하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에서 차이가 나므로 둘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활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구분의 기준	동사		형용사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여부	-ㄴ- : 사랑 ^하 다 (O) -는- : 굶 ^느 다 (O)		-ㄴ- : *예 ^쁘 다 (X) -는- : *높 ^느 다 (X)	
관형사형 전성어미와의 결합 가능성 및 시제차이	-는	-(으)ㄴ	-는	-(으)ㄴ
	사랑하 ^느 (현재) 굶 ^느 (현재)	사랑 ^하 (과거) 굶 ^은 (과거)	*예 ^쁘 ^느 (X) *높 ^느 (X)	예 ^쁘 ^ㄴ (현재) 높 ^은 (현재)
명령 및 청유형 어미와의 결합 여부	사랑하-아라 : 사랑해라 (O) 굶-자 : 굶자 (O)		예쁘-어라 : *예빠라 (X) 높-자 : *높자 (X)	
‘-다’와 결합한 기본형의 구어체 활용 여부	“나는 꽃을 사랑하다.”(어색함) “나는 벽을 굶다.”(어색함)		“채 정말 예쁘다.”(O) “하늘이 정말 높다.”(O)	

대부분의 경우 위의 기준으로 품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3.3 어간語幹stem과 어미語尾ending

용언의 형태를 조금 더 문법적으로 분석하자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각각 어간과 어미라고 한다. 어미에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있는데, 선어말어미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어말어미는 필수적이다. 어간은 어말어미 없이 단어로 문장에 나타날 수 없다. 어말어미의 어말이란 바로 ‘단어의 끝’을 의미한다. 어말어미가 나타나야 용언은 비로소 단어가 된다.

어간-	-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밥을) 먹- (맛이) 좋-	-(으)시- -았/었- -겠- -는- -더- -리-	평서형 : -다.	종결어미 (문장의 종결)
		의문형 : -니?	
		명령형 : -어라.	
		청유형 : -자.	
		감탄형 : -구나!	
		명사형 : -(으)ㄱ, -기	전성어미 (안긴문장 생성)
		관형사형 : -는, -(으)ㄴ, -(으)ㄹ	
		부사형 : -게, -도록	
		대등적 : -고, -거나, -지만	연결어미 (용언의 연결)
		종속적 : -아/어서, -(으)면, -고(서)	
		보조적 : -아/어, -게, -지, -고	